

서경방송 사천시장 당선인 특별대담

<오프닝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민선 8기가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 서경방송에선 민선 8기 서부경남 지자체장들을 만나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건지, 앞으로 계획과 각오도 들어보는 특별대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뒤로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하늘에선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이곳, 삼천포대교공원에서 민선 8기, 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박동식 사천시장, 나오셨습니다.

(박동식 시장 :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질문1> 시장님 먼저 축하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시장으로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먼저 사천시민, 서부경남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천시민과 서부경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사천시장, 박동식입니다.

사천시장으로서 서경방송 대담엔 처음 출연하는 것 같은데, 좋은 이야기, 알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2> 네. 시장님~ 선거운동 기간 숨가쁘게 달려오셨을텐데요. 시원하게 탁 트인 삼천포대교공원에 나오시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너무 좋네요. 저도 자주 찾는 곳인데, 오늘따라 바람도 시원하고, 삼천포 바다 풍경과 향기도 좋~습니다. 이 시원한 바람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모든 아픔이 싹악~ 쓸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3> 저도 야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시장님과 마주하니 기분 좋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시장님~ 취임 이후 선거때보다 더 바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한번 시민들께 당선에 대한 인사와 함께 요즘 시장으로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도 얘기해 주시죠.

예, 먼저, 저를 사천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선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사천시장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저의 공약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물론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황 보고와 함께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하는 등 전반적인 시정 현안 파악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질문4-1> 네, 지난 선거 결과 압승이라는 표현이 뒤따라오는데 시장님께서선 유권자의 표심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지만, 유권자의 표심은 진실성에 있다고 봤습니다.

시장 선거에서, 사천시가 생긴 이래, 전 읍면동에서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후보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누구를 탓하거나 비방하지 않았고, 항상 시민 만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부리지 않고 열심히 시민들과 만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결과를 공약으로 담아내는 등 진실함으로 이뤄낸 값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시군 통합 이후 우리 사천시가 진정으로 하나가 된 원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4-2> 시장님 개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도의원 선거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예, 도의원 선거는 삼천포 동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면
됐는데, 시장선거는 사천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특히, 시장 선거는 12만 사천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원과는 무게감
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질문5> 당선이 확정되고 취임 때까지 많은 시민들을 만나봤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대화는 어떻게 있을까요?

시민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당선의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에 쌓인 산적한 과제들을 능수능란하게 해결해서 고통 속에 계시는 시민들을 잘 보살피라는 명령으로 알고, 침체된 사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6>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소통은 계속 이어가실 거로 생각합니다. 좀 더 원활한 소통과 공유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중심의 시정을 강조했는데, 먼저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누구나, 언제나, 시장을 만날 수 있도록 시장실을 개방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현장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과 시정에 바라는 것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고, 건의해 주신 고마운 안건들은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6-1> 시장님, 시민과 소통을 잘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예,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시민소통 위원으로 모셔서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예,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시장 혼자서 결정하는 제왕적 시장이 아닌 언제나 시민의 주위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에게 필요한, 시민을 위로할 수 있는 소통하는 시장이 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운서 질문7-1> 시장으로서 이것만은 꼭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대표 공약들이 있을까요?

예, 너무 많아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꼭 말씀드리자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남강댐 물 문제 해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반드시 실천하고 싶은 공약입니다.

<아나운서 질문7-2> 그렇다면, 이 공약들을 실천하고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예, 제 공약의 최종 도착지는 얼어붙은 사천의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사천의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역점을 두고, 시행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지역 상품권이 없어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안에서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8-1> 두 번째 말씀하신 남강댐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예, 저는 특정 시를 위해 사천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근본적인 피해예방 대책과 실질적인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것인데, 당연히 우리 사천시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겠죠.

특히, 제도권 밖에 구성되어 있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제도권 안으로 명문화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8-2> 사천시민들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공약이기도 한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빚 없이 지급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부 부처 관계자를 직접 만나 재원을 확보하고,

잉여예산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모든 시민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9>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과 안착을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예, 항공우주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항공우주청 지원 전담팀을 만들어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청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9-1> 아직까지 항공우주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청사진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우주청과 소속 직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도 마련하고, 항공우주산업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도 구축하게 되면,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질문10> 최근 대전지역에서 항공청과 우주청으로 분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나요?

예, 대전지역에서 항공청과 우주청을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항공과 우주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은 우주관련 위성과 발사체의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핵심기술을 공통으로 활용하는 상호 호환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연계육성 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나운서 질문10-1> 항공우주산업의 선진국 경우는 어떤가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보잉, 유럽의 에어버스 등 항공업체가 중심이 되어 우주기술 고도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나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같이 전 세계 주요 기관들도 우주와 항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항공과 우주를 분리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최악의 주장이 될 것입니다.

대전지역의 항공청과 우주청 분리 주장에 대한 불합리성을 적극 홍보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11> 네. 이 부분이 아마 사천시민들이 가장 고대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시장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춰 사천이 좀 더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더하기 위해 어떤 작업들을 진행하실 건가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사천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리시도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여러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안관광지에 관광 레저타운과 400실 규모의 실안 호텔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양도 일원에 사천 앞바다와 실안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대관람차를 건립하고, 비토섬 일대에는 별주부테마관, 어드벤처 시설 등을 건립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12> 네. 그렇군요. 지금 제 뒤로 바다 건너 아쿠아리움 건물이 보이는데요. 경쟁력 있는 아쿠아리움으로 점점 발전해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장님~ 삼천포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들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관일 것 같은데 정말 기대되는데요.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늑도~신도~두응도~마도~저도까지 5개 섬을 3개의 다리로 연결하게 됩니다. 현재 국립공원 공원계획에 포함시키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협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환경을 보존하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풍경을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거닐면서 구경할 수 있도록 멋지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13> 사천 곳곳에 예쁜 관광지들도 많고
맛집도 많아서 제 또래 친구들도 자주 찾고 있더라고요.^^

이젠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걱정거리이며
고민거리인데요,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천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이 있는가요?

예, 인구정책은 산업, 문화, 환경 등 우리 시 모든 정책과
맞물려있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는 산업과 자연이 조화로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산업의 집적지이며, 항만, 공항, 도로 등 다양한
교통시설 접근성이 우수하고, 한려해상의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가진 도시입니다.

항공산업이 코로나 사태로 잠시 위기를 맞고 있으나
항공산업은 국가전략 산업이자 미래 혁신성장 동력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항공MRO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중심도시로 거듭나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
하여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아나운서 질문14> 네. 시장님~ 지금 저희 위로 지나가는 것이 사천바다케이블카죠. 저도 타봤는데, 시장님은 타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예, 저도 자주 탔는데, 사천바다케이블카를 타고 보는 쪽빛 바다와 푸른 하늘,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한려해상국립 공원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케이블카를 타고 하늘에서 보는 사천8경 중 하나인 실안낙조는 환상 그 자체이고, 각산 정상에서 보는 전경은 가슴을 시원하게 합니다.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인생 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사천바다 케이블카를 안 타신 분들은 꼭 사천으로 오셔서 산과 바다 그리고 섬을 잇는 케이블카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질문14-1> 네, 사천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죠. 이런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가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주축으로 한 관광 서비스 분야에서도 고용창출에 의한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3개 면과 동지역은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곳인데, 귀농·귀어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14-2> 예, 앞으로 시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구증가를 위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인식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이 살기 좋다는 인식이 많아지면 우리 시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시의 강점이 잘 드러난 인구정책과 우리 고장이 살기 좋다는 시민운동을 지속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15> 도의원으로 오랜기간 지역정치를 하셨고, 이제는 초선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나를 잘 모르는 시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하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민의 아들로 사천에서 태어나 사천에서 자란 사천의 토박이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어려운 약자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온 사천의 아들로써 16년 동안 경남 도의원을 지냈고, 경남 도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치력과 행정력 그리고 추진력 특히 청렴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외유내강으로 외부의 어떤 압력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질문16> 외유내강의 시장님의 활동, 역할이 벌써 기대되는군요.

참, 시장님께서선 축구 골키퍼 선수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지역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과 축구 한번 해보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

예, 좋죠. 시간이 되면, 시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신나게 공을 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몸을 좀 더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르겠지만.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축구뿐만 아니라 어떠한 운동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나운서 질문17> 네. 시장님 촉구 실력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되셨고요.
이제 새로운 민선 시장으로서 각오와 함께 사천시민들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사천시는 지금,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잘사는 부자도시로
성장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쉬운 길도 아니고 짧게 끝날 길도 아닙니다.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같은 목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 박동식은 오로지 시민 여러분들만 믿고 잘사는 사천시,
행복한 사천시를 만드는데 저의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제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소망이자 시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여해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공정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휴머니즘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사천시민임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네, 시장님 말씀처럼 더 행복한 사천, 더 소통하고, 더 큰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열어나가는 더 멋진 사천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

서경방송이 마련한 특별대담, 오늘은 박동식 사천시장과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